

배포 2025. 9. 18.(목)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9. 18.(목) 12:00  
(지면) 2025. 9. 19.(금) 조간

##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최

- 인문학 부문 1명(양정석 교수),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천진우 교수, 정해명 교수), 자연과학응용(이인규 교수, 김현중 명예교수) 부문 2명 총 5명 수상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정복)은 9월 19일(금),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6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우리 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5명이며,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양정석 연세대 교수는 형식의미론을 국어 구조와 의미 해석 전반에 새롭게 적용하여 국어학과 언어학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천진우 연세대 교수는 동물 실험에서 뇌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유전학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여 나노의학 분야를 선도하였으며, 정해명 서울대 교수는 감람석에 들어있는 물의 함량이 지진파 이방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 지진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이인규 고려대 교수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다중 안테나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국내 통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였으며,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접착제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을 시장에 선보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 원을 수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학술원이 대한민국 학문 발전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기초학문 기반 확대와 우수 인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요
  2.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명단
  3.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주요업적

담당 부서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장	채홍준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박일우 (044-203-6880)
담당 기관	대한민국학술원 총무과	책임자	과장	정재선 (02-3400-5212)
		담당자	주무관	박정아 (02-3400-5215)
		담당자	주무관	이미경 (02-3400-5254)



## 붙임 1

##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개요

### 1. 목적

-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여하여 학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연혁) '55년 제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수상자 총 296명임(70회 포함)

### 2. 행사개요

- 일 시: 2025. 9. 19.(금) 14:00 ~ 15:00
- 장 소: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2층)
- 참석: 국무총리, 교육부 차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 명
- 내용: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5명, 상장 및 상금 1억 원)

시 간	세 부 내 용	장 소
14:00 ~ 14:5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식 및 국민의례(사회자)</li><li>• 인사말씀(회장)</li><li>• 심사보고(심사위원장)</li><li>• 수상자 시상(회장)</li><li>• 수상소감(수상자 5명)</li><li>• 축사(국무총리)</li><li>• 기념사진 촬영</li></ul>	대회의실

### 3. 참고사항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 선정과정)

- 후보추천: 국내·외 학술기관 및 학술단체의 장, 학술원 회원 등
- 선정과정

- ① 추천서 접수 → ② 학술원상 추천위원회(추천서 수합·검토) →
  - ③ 학술원 분과회 예비심사 → ④ 부문별 심사위원회 심사(3차) →
  - ⑤ 종합 심사위원회 심사 → ⑥ 학술원 부회 및 총회(인준 및 확정)

## 붙임 2

## 제7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명단

부 문	성 명	현 직	전 공	주요업적
인문학	 양정석 (1960년)	연세대 교수	국어학 (통사 의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저서: 『한국어 형식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li> <li>○ 연구업적: 국어학 분야의 석학으로 형식의미론을 국어의미론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등 독자적인 문법관을 정리하고, 30여 년간의 국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여 국어학 및 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li> </ul>
자연 과학 기초	 천진우 (1962년)	연세대 교수	화학, 나노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논문: Non-contact long-range magnetic stimulation of mechanosensitive ion channels in freely moving animals. <i>Nature Materials</i>, 2021.</li> <li>○ 연구업적: 나노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뇌 기능의 정밀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유전학(磁氣-遺傳學)기술을 동물 실험에서 세계 최초로 증명하여 나노의학이라는 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함</li> </ul>
	 정해명 (1966년)	서울대 교수	지체구조 물리학, 광물(암석)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논문: Water-induced fabric transitions in olivine. <i>Science</i>, 2001.</li> <li>○ 연구업적: 지진학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세계 최초로 고암, 고온 실험을 통해 상부맨틀에서 일어나는 지진파 이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감람석에 들어 있는 물의 함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이례적인 지진파 이방성에 대한 해석과 맨틀 지구 동역학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함</li> </ul>
자연 과학 응용	 이인규 (1967년)	고려대 교수	무선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논문: Generalized Channel Inversion Methods for Multiuser MIMO Systems, <i>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i>, 2009.</li> <li>○ 연구업적: 무선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4G 이동통신 시스템을 비롯하여 5G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인 다중사용자 다중안테나 기법 연구를 통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MIMO 송수신 방식을 개척하고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에 공헌함</li> </ul>

부 문	성 명	현 직	전 공	주요업적
	 <b>김현중</b> (1963년)	서울대 명예 교수	환경재료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논문: Rapidly Deformable Vitrimer Epoxy System with Supreme Stress-Relaxation Capabilities via Coordination of Solvate Ionic Liquids. <i>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 2022.</li> <li>○ 연구업적: 접착과학과 바이오복합재료 분야의 석학으로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접착제를 개발하여 전기·전자 산업, 특히 핸드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접착 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고분자 및 점·접착제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로 학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li> </ul>



양정석

연세대학교 교수

양정석 교수는 1992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에 대한 학위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국어학자로서 한국어 통사의미론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Chomsky의 생성문법과 Jackendoff의 개념의미론을 기반으로 연구하던 중 2015년부터 Montague로부터 시작하는 형식의미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형식문법』은 이러한 30년 동안의 국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분량과 투여된 시간도 예외적이지만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첫째로, 양정석 교수는 『한국어 형식문법』 이외에도 여러 저작과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한국어 형식문법』은 지금까지의 연구의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형식의미론을 국어 현상 전반에 새롭게 적용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형식의미론을 국어의미론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은 국어학자 중에는 유례가 없다. 양정석 교수의 주관심사인 양상은 특히 형식의미론을 통해서만 발전적 논의가 가능하다.

둘째로, 형식의미론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어 형식문법』은 많은 자료들을 다루면서도 해당 현상들을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 기존의 국어학에서 강조된 자료의 축적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로, 생성문법과 형식의미론을 다양한 국어 현상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수정을 곳곳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 수정이 실제로 언어학 일반에서 추구하는 보편문법의 수정까지 의미하는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보편문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 및 양정석 교수의 연구 전반은 학술원상 인문학 부문 수상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이 상을 계기로 양 교수와 같이 어려운 논리적 방법론을 연마하여 새롭게 기여하는 연구자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천진우

연세대학교 교수

천진우 교수의 대표 논문은 2021년 *Nature Materials*에 게재된 “Non-contact long range magnetic stimulation of mechanosensitive ion channels in freely moving animals”, 국문으로는 [비접촉 원거리 자기장을 이용한 동물의 기계적 이온 채널의 활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광-유전학, 光-遺傳學>의 근본적인 한계를 <자기-유전학, 磁氣-遺傳學>의 개발을 통해 해결하였다. 즉, 동물의 생체 내 깊숙이 자기장을 가해 뇌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뇌 질환 치료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의 행동, 모성애, 식욕 및 사회성까지 제어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천진우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나노의학이다. 천 교수는 MRI 나노 조영제와 나노 자기 수용체 등의 개발을 통해 자기-유전학 기술을 확립하고 뇌 조직의 활성을 제어를 통해 뇌 질환 치료 가능성을 입증해 가고 있다. 또한 심사 대상 논문 이외에도 나노화학을 의학에 접목시키는 세계적인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천 교수는 다수의 세계적 논문을 발표하고 미국 화학회(ACS)의 수석편집장, 미국화학회지(JACS)의 부편집장에 선임되는 등 국제 과학 커뮤니티에서도 주목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천진우 교수의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의 학술 활동은 나노 진단학을 뛰어넘어 나노의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나노 치료 의학 분야의 중요한 축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명  
서울대학교 교수

정해명 교수의 대표 논문은 2001년 *Science*지에 게재된 “Water-induced fabric transitions in olivine” 즉 [지구 맨틀을 구성하는 감람석에서 물에 의해 유도되는 조직 변화]이다. 지각과 맨틀의 약 100km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판 즉 규산염질 층이 하부의 연약권의 유동적 성질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암석판 내부를 구성하는 암석과 광물도 응력을 받아 움직인다. 이때 광물은 특정 방향으로 배열되어 지진파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되며 이를 지진파 이방성이라 한다. 국제학계에서는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지진파 이방성의 원인을 알지 못해 암석판의 유동 규명에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정해명 교수는 세계 최초로 고압, 고온 실험을 통해 깊이 약 30~410km에서 일어나는 상부 맨틀의 지진파 이방성의 원인은 감람석 결정 속에 물이 들어가며, 미끄럼 방향과 광물격자 방향의 변화로 인해 맨틀의 유동 방향이 90도로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진파 이방성이 발생한다고 실험적으로 밝혔다. 이 논문은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00회 인용 되었고, 최근 5년간에도 195회 정도로 많이 인용되며 여전히 활발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여러 곳의 섭입대인 뉴질랜드 해구, 마리아나 해구, 통가 해구, 일본 해구 등 설명하기 어려운 해구 지진파 이방성 원인 규명에 정해명 교수의 연구 결과가 계속 인용되고 있으며, 이례적인 지진파 이방성에 대한 해석과 맨틀 지구 동역학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정해명 교수는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높은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표 논문 관련 주제에 관한 누적 연구 업적이 74편으로 그간 꾸준히 학문적 깊이를 확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정해명 교수의 지진학에 관한 국제적 연구 성과와 그동안의 연구 업적, 학술 활동 등은 지각과 맨틀 내부구조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규

고려대학교 교수

이인규 교수의 대표 논문은 2009년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에 게재된 “Generalized channel inversion methods for multiuser MIMO systems”이다. 오늘날 무선이동통신에서는, 한정된 무선주파수 자원의 제약 하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최대의 전송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중 안테나 (Multi-Input Multi-Output: MIMO) 기술이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 신호 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전송량을 최대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무선통신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섭과 잡음을 동시에 줄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 온 전통적인 기법에서는 간섭은 줄이지만 잡음은 오히려 증폭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인규 교수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잡음의 효과까지 반영하는 일반화된 기법을 제안하고 정교한 이론적 증명과 현실적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기법이 최적의 해법임을 증명하였다. 이 기법은 통신 학계와 표준화 기관의 검증을 받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세대(4G)와 5세대(5G)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에 포함되었다. 이 논문은 무선이동통신에서 다중사용자의 간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한 기념비적 논문으로 평가된다.

학자로서 이인규 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았고,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 다수의 비중 있는 상들을 수상하고 권위 있는 학술기관들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SCI 논문 230여편을 출판하고 국내외 특허 100여 건을 출원하였으며, 이 업적에 대한 누적 인용 회수는 12,700회, 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26편, H인덱스는 60이다. 그의 연구는 국내외로부터도 높이 인정받아 2013년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 2017년 과기정통부의 한국공학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5년에 IEEE Fellow가 되었고, 2019년에 52세로 한국공학한림원 최연소 정회원이 되었다.

이인규 교수의 축적된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 결과는 학문 및 사회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현중 교수의 대표 논문은 “Rapidly Deformable Vitrimer Epoxy System with Supreme Stress-Relaxation Vabilities via Coordination of Solvate Ionic Liquid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32(51): 2207329 (2022).” 혹은 [이온화 용액 촉매 효과에 의한 응력 해소 및 고속 변형 가능 비트리머 에폭시 시스템 개발] 이다.

위 대표 논문은 변형 가능한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접착제를 개발한 내용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자재료 접착제로 사용해 온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의 낮은 연성과 응력, 굽힘과 비틀림 변형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폭시 비트리머 소재 접착제가 차세대 전기·전자 기기에 주목받는 플렉시블 디바이스에 응용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폴더블 폰(foldable phone) 출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유연하게 잘 늘어나는 소재를 접착제로 사용한 폴더블 폰은 수만 번의 반복된 접힘에도 원형 보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김교수 팀이 개발한 LNG 선박용 접착 소재 기술은 앞으로 세계적인 선박 제조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현중 교수는 합판 등 목질 재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개발을 시작으로 자동차 구조 및 준 구조용, 전기자동차용, LNG 및 LH<sub>2</sub> 선박용 접착 소재뿐 아니라, 전기·전자 산업, 특히 핸드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접착 소재 산업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고분자 및 접·접착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온 학문 횡단형 (cross-disciplinary) 과학자이다.

이 외에도 김현중 교수는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접착제 분야의 현장 적용 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의 실용화 및 상품화에 기여해 왔으며 접착과학 및 바이오복합재료 분야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